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13-144
<https://doi.org/10.29212/mh.2024..130.1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96년 을미홍주의병 선봉장 정인희와 정산 전투

조준희 |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 목 차
1. 서론
 2. 정인희의 청양군수 부임과 홍주의병 가담
 3.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대 관군의 진압 작전
 4. 결론

초 록 본고는 '정산 전투'로 알려진 1차 홍주의병 정인희 부대 대 관군의 진압 작전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연구다. 기존 학계에서 선봉장 정인희 그리고 관군 측 상황을 다룬 적이 없었고, 이에 문헌 고증과 필드워크를 시행했다.

1896년 1월 18일 청양군수 정인희는 선봉장이 되어 2천 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한 뒤 41km 거리의 공주부 공격을 감행했다. 휘하에 참모장 이세영 등 유림들이 보좌했고, 금정역참 역민들이 부대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인원에 비해 무기 부족, 험준한 지형, 약천후가 겹쳤던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그들은 18.6km 행군한 뒤 정산에서 3일간 지체했다. 그 사이 공주부 관군 100명 중 구완희 소대 50명은 정산과 공주의 경계에 있는 공수원에 매복

했고, 백낙완 소대 50명은 후방을 사수했다. 1월 21일 저녁 출정을 재개한 부대 선발대는 공수원에 이르러 관군의 '양동 작전'에 기습당했고, 후발대가 도주하면서 결국 패했다. 소규모 관군이 화력뿐만 아니라 전술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점이 부대의 정산 전투 패전 요인으로 주목되었다. 학계에서 정산 전투 접전 지역이 철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정산군 공수원(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임을 확정하였다.

정인희는 패전과 동시에 군수에서 파직된 뒤 끝내 충남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홍주의병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1906년 2차 홍주의병 봉기를 다시 일으켰다.

한말 전기 의병 대 관군의 전술 비교 분석 사례가 군사와 역사학계, 지역사 연구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구완희, 이세영, 정산, 정인희, 홍주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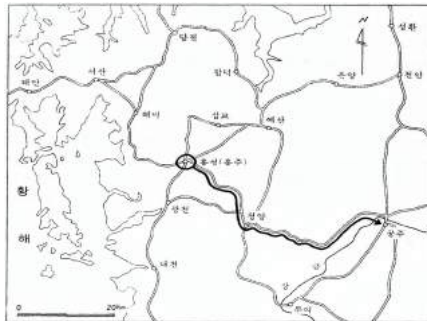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서론

군사(軍史) 분야에서는 국군의 정통성을 한국광복군에 두고 대한제국군(1897)까지 확장하여 뿌리를 찾으려는 성과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

더 앞선 시기의 의병은 군사적 관점에서 조직, 전술, 무기, 훈련, 보급 모든 면에서 열세였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개인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점차 체계적인 독립군으로 발전해 갔으며, 대한제국군으로서 의병에 가담한 이도 적지 않았다. 198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병의 역사를 집대성한 『의병항쟁사』를 편찬했다.¹⁾ 『의병항쟁사』, 「을미의병의 항쟁」 편에 1차 홍주의병의 공주 공격 루트 지도가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라는 삽화로 실려 있어서 주목된다.

〈그림 1〉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



* 출처 : 『의병항쟁사』(1984)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당시 지도부는 홍주성에서 전원 체포되었기 때문에, 위 경로는 선봉장 정인희(鄭寅羲, 1849~1917) 부대의 공주부 진격만을 지칭한다. 역사학계에서는 정산군(지금의 청양군 정산면)에서 관군과 접전이 벌어져 ‘정산 전투’로 표현하고 있다.²⁾

을미홍주의병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도부 김복한, 이설을 비롯해 안창식-안병찬 부자, 임한주 등 인물별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유독 정인희는 부수적으로 언급될 뿐³⁾ 심도 있게 조명된 적이 없었다. 현재는 휘하 의병들의 공적이 더 부각되고 서훈 추서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정인희 부대의 행보와 정산 전투 전말은 김상기에 의해 처음 밝혀졌고,⁵⁾ 부대 참여 계층은 유생(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외에 보부상, 관찰사 이승우의 동학군 진압 동참 정도가 파악되었으나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인희 개인 그리고 관군·일본 측 상황은 다뤄진 적이 없다.

그간 학계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안창식의 「간호일기(長湖日記)」

-
- 2)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 근대사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1990, 189쪽.
- 3) 전병철, 『韓末洪州義兵의 性格』, 『한성사학』 2, 한성사학회, 1984.
정성중, 『韓末 洪州義兵에 관한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최근목, 『洪州義兵에 관한 一考: 參與階層을 중심으로』, 『새마음』 8, 충남대 새마음 연구소, 1988.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 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오영섭,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국사관논총』 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은숙, 『1905~10년 洪州 義兵運動의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박민영, 「한말 牙山 지역의 의병투쟁」, 『송실사학』 35, 송실사학회, 2015.
조준희, 「단재 정훈호의 생애와 사상」, 『대종교연구』 1, 한국신교연구소, 2019.
이성우, 「古狂 李世永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103, 호서사학회, 2022.
- 4) 이창서(1841~1911), 이봉학(1858~1924), 이병승(1857~1924)은 이 ‘공주 공격 담당’ 행적으로 각기 서훈(2004, 2008, 2021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 5) 김상기, 앞의 논문, 207~208쪽. :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民族戰爭通史』 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240쪽.

외에 『매천야록』, 『대한계년사』, 이소응의 「척화거의사실대략(斥和擧義事實大略)」은 간접 기록이다. 정인희 부대에 직접 참전했거나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이 남긴 자료로 참모장 이세영의 「고광연보(古狂年譜)」, 관군 백낙완의 「남정록」, 홍주부 사판 손승용의 보고서, 주일공사관 순사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의 첩보가 있으며 이 기록들이 1차 사료로서 중요하다. 고광 이세영(李世永, 1870~1941)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2대손으로 홍주의병에서 출발해 망명 후 신홍무관학교 교장 등을 지냈는데 그가 남긴 「고광연보」는 회고록 성격상 자신의 공을 부각시킨 면이 없지 않으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병 부대 내부 상황이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편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는 홍주 등지 국내 의병 봉기 현황이 연재되었는데 연관 기사들은 1895년부터 11년간 아사히신문 경성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기자 니시카와 쓰우데쓰(西河通徹, 1856~1929)가 일본에 보냈던 생생한 정보로 국내 기록이 없는 조선 정부 친위대 상황이 실려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의병 진압 상황이 담긴 관군 회고록, 관찬 기록, 일본 첩보 및 신문 기사는 활용되지 못했다.

을미의병의 효시는 문석봉의 유성의병인데, 1895년 12월 14일 공주부에서 진압 작전에 투입한 지휘관이 구완희와 백낙완이었고,⁶⁾ 백낙완의 회고에 전투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이 정인희 부대 진압에 다시 투입되었기 때문에 「남정록」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홍성-청양-공주 사이 공간에서 정산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100명에 불과했던 소규모 관군이

6) 김상기, “朝鮮末 文錫鳳의 儒城義兵”, 『역사학보』 134:135(1992):98,
<http://uci.or.kr//G901:A-0000908408@N2M>.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20배가 넘었던 대규모 부대의 패전 요인 등 양측 상황을 동등하게 살펴보는 것도 군사학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사료되었다. 청양은 칠갑산(해발 561m) 중심의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평면 지도만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논자는 조선과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제작한 고지도를 분석하고서 위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 즉 정인희 부대의 홍성-청양-정산-공주 진격 루트를 세 차례 현지 답사했다. 접전지가 철마정인지, 공수원인지 기록마다 달라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전국 규모 항일 의병의 도화선이 된 1906년 병오홍주의병 봉기를 다시 일으켰다. 소위 3일 천하로 끝나 2차 홍주의병에 비해 저평가되었으나,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성의병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고 조정의 면직 압박과 친위대 출병, 공주부 파견 관군 진압의 삼중고 속에서 공주부 공격을 다시 감행했던 족적에 대해서는 재조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을미홍주의병 정인희 부대가 1896년 1월 21일 치렀던 정산 전투에 대해 기존 성과에서 미진했던 점을 규명해 의의를 찾고 학계와 지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인희의 청양군수 부임과 홍주의병 가담

가. 청양군수 정인희의 홍주의병 가담

정인희는 1849년 1월 17일 서울에서 정영조(鄭永朝, 1809~1860)와 풍양 조씨(1810~1855) 사이에서 3남 3녀 중 막내아들

로 태어났다. 자는 경빈(敬賓, 景賓), 호는 우당(岫堂), 본관은 동래(東萊)다.⁷⁾

정인희의 학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가계도를 살펴보면, 1851년경 병조참의를 지낸 정익조(鄭翊朝, 1813~1864)에게 출계했고 경화세족 관암 홍경모가 양 외조부, 최익현의 「계유상소(癸酉上疏)」(1873)에 대해 “유배형으로 그칠 수 없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추담 조병휘(초명 조휘림)가 고모부로 확인된다.

동래 정씨 문익공파는 서인-소론계 명문가로, 조부 정기선(鄭基善, 1784~1839)은 경상도관찰사로서 왜인에 대한 강경책을 조정에 건의했던 공적이 있고, 도내 기민(飢民)을 해결하고 예조판서, 대사헌에 오른 인물이다. 정인희는 척왜-척양의 가풍⁸⁾ 속에서 가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79년 5월 기묘 식년시 생원에 입격, 1894년 7월 14일부로 청양현감을 제수받은 뒤 8월 홍주목 관할 청양현청에 부임했다.⁹⁾ 부임 1개월 뒤 동학농민운동 전주·광주 쫓기가 발발하자 현청 북쪽의 우산성을 보수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했다.

1894년 4월 13일 사헌부 대사간, 행 부호군 등을 지낸 이승우(李勝宇, 1841~1914)가 홍주목사를 제수받고서 10월 7일 충청도 서부 지역 동학군 토벌 담당인 호연초토사에 임명되었다. 11월 14일, 그는 초토사로서 남정(南征)을 결의하고 본영(本營)의 총

7) 정재덕 편, 『東萊鄭氏己未世譜(復元本)』 13, 東萊鄭氏大宗中, 2010, 55면.

8) 1866년 정인희가 만 17세 때 작은 매형 임홍상에게 보낸 문안 편지 「병인 십월 이십팔일 외인 님홍상 상서」(홍주성역사관 소장본)에는 “국운이 기운 때에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본다더니 임금께서 큰 복력과 뛰어난 무용으로써 물리치시니 신민의 다행한 일(국운이 비싸흐온 썩을 당호와 냥적이 우리나라를 엿본다 흐더니 금상 흥복과 신무로 물리오니 신민의 다행흐온 일)”이라며 신미양요에 대한 우국 심경과 척양 사상이 담겨 있다.

9) 李在信, 『公清右道靑陽邑誌』, 光武10(1906), 21b. 1895.5.26. 칙령 제98조로 현은 군으로, 현감은 군수로 개칭되었다.

수(銃手)와 창수(槍手) 150명을 뽑고 여러 고을에 전령을 보내 동시에 거병해 남포(지금의 보령시 남포면)에 가서 지키게 했다. 이에 보령현감 이교철(李教哲)·해미현감 이일(李鎰)·청양현감 정인희·소모관 이장규(李章珪) 등이 와서 함께 군무를 의논했는데,¹⁰⁾ 정인희 등 홍주부 관할 현감들은 이승우의 동학군 토벌을 도왔던 것이다. 12월, 동학군은 청양 인접 공주로 지나갔고 정인희는 조정으로부터 중등 평가를 받았다.¹¹⁾

정인희는 이듬해 개화파의 을미 변복령(3.29), 을미사변(8.20), 단발령 공포(11.15)에 항거한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했다.¹²⁾ 그는 11월 26일(1896.陽1.10) 청양향교 전교 이봉학(李鳳學, 1858~1924)으로부터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서신을 받고서 다음날에 동참을 결정했다.¹³⁾ 11월 28일(陽1.12) 홍주향교 전교 안창식(安昌植, 1838~1899)은 정인희를 찾아가 격려했다.¹⁴⁾

11월 24일(陽1.8), 안창식은 단발령이 내려오자 이승우에게 창의하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¹⁵⁾ 이설과 김복한, 안병찬이 권해도 듣지 않았으며, 홍건이 권했을 때는 “인심의 향배를 보아 하겠다”라며 조건부로 답했다.¹⁶⁾ 이승우가 마지못해 창의대장을

10) 洪樾, 최원경 역, 『洪陽紀事』(1894.11.14),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정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8, 110쪽.

11) 『官報』, 1894.12.18, “청양현감 정인희는 큰 난이 겨우 지나갔고 조심하고 삼가서 나감. 평가 ‘중’(各道中下等, …靑陽縣監 鄭寅羲, 大亂纔過小心做去… 以上中)”

12) 安炳瓚, 『葵堂日記』(1895.11.27),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174쪽. 이승우의 비서였던 홍건과 유희장 안창식 등 이승우를 도와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이들이 홍주의병을 거의하자 정인희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정인희도 이승우에게 기만당한 셈이다.

13) 이구영, 『湖西義兵事跡』, 수서원, 1993, 164~165, 678쪽, “李相麟 洪州府供辭, 李鳳學持金福漢書札, 往靑陽倅(이봉학이 김복한의 서찰을 가지고 청양군수에게 갔다)”.

14) 安昌植, 『良湖日記』(1895.11.28), 『홍주의병실록』, 앞의 책, 164쪽.

15) 安炳瓚, 『葵堂日記』(1895.11.24), 위의 책, 173쪽.

수락한 날짜는 12월 2일(陽1.16)이다.¹⁷⁾

관찰사 이승우는 의병 참여를 승낙하고서 이봉학이 군령을 지참해 청양으로 가면 현감 정인희가 공주로 진격하고, 이세영에게 보부상을 이끌고 청양 의병을 도우라고 명령했다.¹⁸⁾

정인희는 12월 1일(陽1.15) 안병찬 등 홍주 유생들이 홍주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튿날 이창서에게 수백 명의 군사를 팔려 보내 의병에 합류시켰다.¹⁹⁾ 12월 3일(陽1.17) 청양에 창의소를 차리고 홍주창의소에 포군 5백 명과 화포 1천정을 요청했다.²⁰⁾

나. 홍주부와 주일공사관의 정인희 첩보

그런데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가 배신해 성내에 있던 김복한과 이설 등 주모자가 체포되고 의병들이 강제 해산되었다. 12월 4일(陽1.18) 정인희는 군사를 일으켜 공주부로 진격했다.²¹⁾

12월 2일 홍주부를 장악한 홍주의병의 거의 방략(전략) 중 하나는 ‘공주부 선공(先攻)’이었다.²²⁾ 당시 공주부 관찰사는 이종원(李淙遠)이다. 첫째, 1895년 11월 15일 공포된 단발령이 단행되자 이종원은 스스로 삭발하고서 금강 나무를 가로막고 행인들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해 길에 왕래하는 사람이 끊겼고, 사방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했던 원흉이었다.²³⁾ 둘째, 공주부 감영은 이종

16) 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2~134쪽.

17) 安炳瓚, 『葵堂日記』(1895.12.2), 위의 책, 175쪽.

18)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0쪽.

19) 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6쪽.; 安炳瓚, 『葵堂日記』(1895.12.2), 앞의 책, 175쪽.

20) 林翰周, 『洪陽紀事』, 위의 책, 138쪽.

21) “청양군수 정인희가 발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聞, 靑倅鄭寅羲, 發言之報)”(安昌植, 『長湖日記』(1895.12.6), 앞의 책, 164, 166쪽).

22)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4쪽.

23) 황현,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476쪽.

원의 하소연²⁴⁾을 빌면 성곽이 없고 병사가 200명에 불과해 사방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였다. 또한 무기가 준비되지 않아 조정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 군대와 무기(총 3백정, 단총 50정 및 탄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²⁵⁾

이 공주부 공격의 선봉장을 군수 정인희가 맡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진격 명분(을미사변 및 단발령)은 조정 측 보고 및 일본 측 첩보에도 잘 나타난다.

우선 1896년 1월 19일(陰12.5)에 홍주부 사관 제1위원 손승용(孫承鏞, 1855~1928)이 농상공부 참서관 오세창에게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홍주부에 사변이 나는 것을 보고 또한 완고지심으로 단발령[斷髮之事]에 항거코자 하여 금정역검관인체 자처했다. 금정역에 거주하는 역교 최만광과 역리 박문익을 체결하였는지 금정역에 현존한 군기(軍器)를 본월 17일(1895.陰12.3-논자 주) 밤에 운반하여 소위 유희군(儒會軍)에게 분파시키고, 인근 여러 군의 대소 민인을 청양군수가 스스로 이끌고 정산 지역을 경유하여 공주 지역으로 나아가서 방금 소동이 시작되었다. 도처 물정(物情)이 대단하고 급작스러우며, 각처 요충지 입구[隘口]를 끊고 막아 군사[行旅]로 하여금 통섭치 않게 한다. -건양원년(1896) 1월 19일 홍주부 사관 제1위원 손승용²⁶⁾

24) “공주부 관찰사 이종원이 상소하기를, …(중략)…본부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본래 성곽이 없고 병사도 200명에 불과한데, 사면이 적의 공격을 받아 달려가 구제하기에 지쳐 있습니다.”(선종순 역, 『승정원일기』, 고종 33(1896), 2.20)

25) 김상기, 「金福漢의 洪州義兵과 파리長書 運動」, 『대동문화연구』 39(2001):340, <http://uci.or.kr/G901:A-0001653029@N2M>.

26) 『各司謄錄』, 「驛土所關查員質報存」 照會 第四號(1896.1.19).

다음, 1896년 1월 20일(陰12.6) 일본 측에서는 주한일본공사 관 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판리공사에게 공주와 홍주에 순사 파견을 위해 호조(護照, 여행권)와 관문(關文, 공문)을 요청했고, 판리공사는 본 안건을 의무대신 김윤식에게 전했다.²⁷⁾ 김윤식은 즉각 공주부 관찰사 이종원에게 순사를 도우라는 훈령을 내렸고,²⁸⁾ 판리공사에게 호조와 훈령을 발급해 주었다. 1월 24일(陰12.10) 의병 진압 현장에서 니시무라 순사가 고무라 판리공사에게 보고한 첩보는 다음과 같다.

1월 24일. 지난 13일(陰11.29-논자 주) 전 홍주목사가 각부에 보낸 격문에 전 開陽(靑陽의 오기-논자 주)郡守 鄭寅義(鄭寅義의 오기-논자 주)가 거괴가 되어 2,000여 명의 폭도를 이끌고 공주로 갔으며, 21일 밤에 정산 斗門에 이르렀으므로 공주에서 참령과 대홍군수가 각기 병정 50명씩을 이끌고 나가 同地에서 접전하여 격퇴시켰다 함. 원인은 8월 11일(8월 20일의 착오-논자 주) 사변과 단발령 때문이라 함. 그러나 사실은 분명치 않음.²⁹⁾

27) 국사편찬위원회 DB,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一. 外部往來, (66) 公州 等地로 파견하는 순사의 護照·關文 요구 건.

28) 『忠淸南北道來報』 1(066a).

29) 국사편찬위원회 DB,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五. 機密通常和文電報往復一·二第3冊, 51-1.(斷髮令反對 民衆蜂起 各地狀況 報告1) 一月廿四日, 公州 西村巡查→小村. 정인희 부대 진압 작전이 종결된 상황에서 거의 원인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는 첩보가 있었으나 체포해서 직접 취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소견을 첨언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대 관군의 진압 작전

가. 정인희 부대의 진군과 정부 친위대의 출병

12월 3일(陽1.17) 정인희는 홍주창의소의 무기 지원이 여의치 않자 그날 밤을 기해 금정역참 역원들에게 명하여 군기(軍器)를 유희군(儒會軍)에게 배포했다. 유희군의 지휘관은 이세영(참모장), 이봉학(참모), 이병승(후에 선봉), 김정하(중군) 4인으로 파악된다.

금정역은 청양군청에서 서쪽 9km 거리에 있었다. 애초에 필요했던 1천정의 화포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지만 역참에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 그 외 오방기 10개, 순시기 1쌍, 영기 1쌍, 등채 2개가 있었다.³⁰⁾

또한 역민이 58호, 인근 먼리에 사는 역민이 75호로 총 133호나 되었으며³¹⁾ 찰방 오상학(吳相鶴)이 대표로 있었다. 정인희 부대에 합류한 주동자는 역교(驛校) 최만광(崔萬光)과 역리(驛吏) 박문익(朴文益)이었다. 두 사람은 동학군에 가담했던 인물이며, 장정 수백 명을 모으고서 각자 장작을 소지하게끔 했다.³²⁾ 이들은 12월 3일 홍주에서 금정역으로 도피한 홍주부 세무시찰관 김기룡(金基龍)을 에워싸고 “세무시찰관도 역시 개화파 소굴에서 내려온 관원이라 죽여 마땅하다”라고 외쳤는데, 김기룡은 전 찰

30) 국사편찬위원회 DB, 『驛土所關查員質報存』 02, 建陽元年(1896) 3.4, 洪州府查辦第一委員 孫承鏞→農商工部大臣 趙秉稷, 「報告」第4號, “홍주부 관하 7개 군 각 역전담의 改量降等과 임천 등 7개 군의 역토 양안수정 등을 보고”

31) 위와 같음.

32) 『各司謄錄』, 『驛土所關查員質報存』 照會 第四號(1896.1.19).

방 김영선(金永善)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금정역에서는 1894년 가을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영에 말 100여 필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고자 마호(馬戶)들에게 수 천 냥의 부가세[添價錢]를 납부하게 했던 피해가 있었다.³³⁾ 특히 박문익은 역리이자 마호로서 청군에 말을 빼앗겼던 피해 당사자³⁴⁾였기 때문에, 을분이 짐작된다. 역리는 양인 신분이었으나 천민 취급을 받았다.

12월 4일(토) 날이 밝자 정인희는 금정역민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해 대기했다. 그런데 관찰사 이승우의 배신과 동지들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서산군수·남양부사·대흥군수는 회군했으나,³⁵⁾ 청양군수 정인희만 출정을 강행했다.

청양에서 공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정산군을 거쳐야 하고, 정산군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정산군수는 서상면(徐相冕, 1842~1915)이었다. 홍주와 공주 사이 대흥, 청양, 정산은 군수들이 홍주의병에 적극 동조한 지역이었다. 청양군청에서 정산군청까지는 약 18.6km로 도보 4시간 거리다(청양군 읍내면 월천(月川)[후의 청양읍 교월리] → 동상면 탄동[후의 대치면 탄정리] → 수곡(壽谷)[후의 대치면 주정리] → 송죽골[僧主洞][후의 대치면 광대리] → 대티[大峙][후의 대치면 대치리] → 정산군 읍면 용머리[龍頭][후의 정산면 용두리] → 현내면[후의 정산면 서정리]). 그런데 칠갑산 자락의 고갯길이 험준하여 실제 행군은 배로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산까지 행군하면서 지역 주민³⁶⁾까지

33) 『公文編案』 19, 奎18154-v.1-99, 019a-020b, 洪州府觀察使 李勝宇, 「報告書」(1895.8.29), “홍주부 관찰사의 금정찰방이 보고한 1895년 復戶結 처리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해당 지령”

34) 국사편찬위원회 DB, 『驛土所關查員質報存』 02, 建陽元年(1896) 3.4, 洪州府查辦第一委員 孫承鏞 → 農商工部大臣 趙秉稷, 「報告」 第4號, “홍주부 관하 7개 군 각 역전담의 改量降等과 임천 등 7개 군의 역토 양안수정 등을 보고”

35)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5쪽.

36) 12월 3일 김복한이 홍주부 각 군 각 면에 「통문」을 띄워 화성(지금의 청양군 화성면)에도 도착했는데 각 이장이 한 집에 군정(軍丁) 1명씩 출동케 했고, 모집에 응

합세해 정인희 부대 총인원은 2,000명으로 관측되었고, 정산군에서 진을 치고 3일간 숙영했다.

진격이 지체된 이유는 충청감영 참모관으로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공로가 있던 이인찰방 구완희(具完喜, 1876~?)³⁷⁾가 공주 부 영관 자격으로 선봉장 정인희에게 거짓 간찰을 보내 교란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참모장 이세영은 구완희를 믿을 수 없다며 직언했고, 이병승을 선봉, 김정하를 중군으로 한 선봉군을 앞장서게 했다.

그때 청양군수가 (정산에) 머물러 묵고 나아가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병귀신속 곧 군사를 지휘함에 귀신같이 빠름을 귀히 여긴다”라고 했거늘, 만약 더 지체하시면 필히 홍주와 공주에서 협공해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청양군수가 말했다. “이미 나와 공주 영관 구완희의 약조가 있다”라면서 그 편지를 보이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마땅히 공주관찰사를 사로잡을 것이고 의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운운했다.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의했던 이승우도 이렇다저렇다 했는데, 하물며 구완희라? 그 사람은 본래 동학 잔당이 나 도리어 그 무리를 헤치고 지금 부역해 관직을 얻었으니 틀림 없이 신의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³⁸⁾

한 자는 전혀 도피하려는 뜻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깔고 살진대 차라리 의에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기도 했다(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7쪽).

37) 구완희의 몰연도는 『매일신보』 1915.3.20, 「具完喜氏 逝去」에 1915년 3월 19일 宿病로 인해 별세했다고 보도되었고, 족보(『능성구씨세보』 5, 서울: 능성구씨대중회, 1986, 429쪽)에 1945년으로 적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38) “(原文)時青守, 逗留不進, 余曰, 兵貴神速, 若遲必洪公合擊, 前後受敵也. 青守曰, 己與公州領官 具完喜, 有約, 且示其書, 不幾日, 當擒公察請陣云云. 余曰, 不然, 以若同謀李勝宇反復, 況具完喜乎. 此人, 本以東匪餘徒反害其黨, 今附逆得官, 索無信義, 何可信之. 不如連進.”(李世永, 「古狂年譜」, ‘三十二年 乙未’, 第十頁)

이세영이 주장한 ‘병귀신속(兵貴神速)’은 『손자병법』 제11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용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兵之情, 主速)”과 같은 말이다.

이세영의 예상대로 공주관찰사의 전보를 받은 조정에서는 1월 19일(陰12.5) 친위대 파견 논의를 거쳐 1월 21일(陰12.7) 친위대 1중대를 홍주로 출병시켰다. 친위대 소식을 다룬 『도쿄아사히신문』 기사를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조선국 주차 일본공사관 소속 무관 와타나베 소좌가 그저께 19일 밤에 전한 상황 시달 전보는 다음과 같다. 조선국 충청도 홍주에서 폭도가 봉기했는데 그 수가 1천여 명으로 창궐한 세력 이어서 조정에서 진압을 위한 친위대 1중대 파견하려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충청도 홍주 폭도 봉기”, 『도쿄아사히신문』(1896.1.21)

충청도 홍주에서 적도가 봉기했는데 거괴는 전 홍주목사인 듯 하다. 관찰사로부터 「본부가 위급하니 병사를 보내 달라」는 전보가 있었다. -“충청도의 폭도(20일 경성 니시카와 쓰우데쓰 특별)”, 『도쿄아사히신문』(1896.1.22)

1월 19일(陰12.5)은 정인희 부대 1천여 명이 청양을 떠나 정산군에서 숙영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홍주의병 창의대장을 여전히 이승우로 파악했고, 공주부 관찰사의 다급한 전보를 받고서 의병 진압을 위한 출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저께 21일, 조선국 주차 일본공사관 소속 무관이 전한 상황

39) “(雜報)忠淸道洪州暴徒蜂起”·“(電報)忠淸道ノ暴徒(二十日(午後六時二十分) 京城西河通徹特發)”·“(雜報)暴徒鎮壓軍派遣”·“(電報)賊勢猖獗(廿二日(午後六時十分) 京城西河通徹特發)”·“(朝報)時事)賊徒續聞(京城 西河通徹)”, 『東京朝日新聞』(1896.1.21, 1.22, 1.23, 1.24, 2.2).

시달 전보에 의하면, 한국 조정은 홍주 및 원주의 폭도 진압을 위해 친위대 각 1중대를 파견했다고 한다. -“폭도 진압군 파견”, 『도쿄아사히신문』(1896.1.23)

춘천·홍주·안동 3부 관청, 제천·원주 2군 관아가 적도의 수중에 들어간 까닭에 전주 행군 중인 친위대 1중대를 원주에, 당지 친위대 1중대를 홍주에 각기 급파하게 했다. -“적도 세력 창궐”(22일 경성 니시카와 쓰우데쓰 특별), 『도쿄아사히신문』(1896.1.24)

…홍주(충청도)에서 일어난 적도들도 공주부를 습격하려는 기세였다. 즉 공주는 양쪽에서 적을 맞게 된 상황이라 형세가 위급하므로 이와 같이 경보 청원이 계속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설에는 홍주 적과 중에 예전에 관찰사였던 아무개도 있다고 한다. 친위 1중대는 오늘 아침에 쌓인 눈과 단단한 얼음을 밟고 공주를 향해 출발했다(이상 1월 21일 발). -“적도에 관한 후문(경성 니시카와 쓰우데쓰)”, 『도쿄아사히신문』(1896.2.2)

위 기사의 1월 21일(陰12.7)은 정산 전투 당일이지만, 3일 전 홍주부 관아가 장악된 1월 18일(陰12.4) 상황과 공주부 관아의 위기가 같이 보도된 것이다.

12월 7일(陽1.21) 드디어 정인희 부대는 ‘간두문’⁴⁰⁾까지 이동한 뒤 어둠을 틈타 공주부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했다. 정산군청에서 간두문까지는 3.4km로 도보 1시간 거리이며, 간두문에서 철마정⁴¹⁾에 이르는 길은 넓은 평야지대로 행군하기에 편하지만,

40) 간두문은 현 청양군 목면 지곡리 321-2 일대로, 옛 한자 지명이 ‘艮杜門(「忠清監營啓錄」, 1845), ‘干頭門(「良湖日記」, 1895), ‘斗門(『駐韓日本公使館日記』, 1896), ‘艮斗門(「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定山」, 1911), ‘干杜門(「古狂年譜」, 1939?)으로 적혀 있다.

41) 安昌植, 「良湖日記」(1895.12.7)에 언급된 ‘철마정(鐵馬汀)은 「各陣將卒成冊」(1894)에 ‘철마장(鐵馬場)’으로 나오고, 「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定山(洪州二號)」(1911)(남

관군의 공격에는 은폐·엄폐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기(義氣)와 병력 수만 믿고 전진하다가 ‘위지(圍地, 소수의 적이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에서 복병의 기습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공주부 관군의 전략과 전술

같은 날, 구완희가 병졸 50명, 그리고 경리청 대관으로서 구완희와 같이 참전했었고 문석봉 유성의진 진압 경험⁴²⁾이 있던 백낙완(白樂浣, 1845~1930)이 병졸 50명을 이끌고 선제공격에 나섰다.⁴³⁾ 이는 문석봉 의진 진압 때보다 절반 병력이었는데, 나머지 병력 100명은 감영을 사수했을 것이다.

구완희 소대는 용진을 건너 공수원⁴⁴⁾에 당도해 진을 쳤고, 백낙완 소대는 후방의 동천주막[銅川店]⁴⁵⁾에 주둔하면서 수색과 사주

영우 편,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3, 성지문화사, 1997)에 ‘철마점(鐵馬店)’으로 표기되었다. 현재도 철마장(목면 안심리 산 10-2)으로 불린다. 철마장은 목면 안심리 마근동 서쪽의 ‘철마산(지금의 목면 본의리 미겔산, 해발 369.2m)’에서 유래하며 안심 2리(목면 안심리 585-7) 목면사무소 일대다.

42)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한국학보』 74(20-1)(1994):190-191, <http://uci.or.kr//1410-ECN-0102-2008-910-000439000@N2M>.

43) “...21일(음력 12.7) 밤에 정산 두문(斗門, 艮斗門-논자 주)에 이르렀으므로 공주에서 참령과 대홍군수가 각기 병정 50명씩을 이끌고 나가 동지에서 접전하여 격퇴시켰다 함”(『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五. 機密通常和文電報往復一·二 第3冊, 51-1. (斷髮令反對 民衆蜂起 各地狀況 보고1) 一月廿四日, 公州 西村巡查→小村)

44) 1834년 「청구도(靑邱圖)」에 ‘공서원(公西院)’으로 적혀 있으나, 1894년부터 ‘公壽院(『錦藩集略』, 1894.7.7), ‘公須院(『各陣將卒成冊』), ‘公水院(『公警』 第576號, 1908)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근대 자료에서 공수원의 소속 군이 정산과 공주 양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산 목면 송암리와 공주 우성면(옛 성두면) 용봉리 경계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1911년 陸地測量部 발행 『朝鮮五萬分一地形圖: 公州(公州十四號)』에는 공수원이 없으나, 1922년 지형도에 보인다. 현재 위치는 청양군 목면 송암리 110-3번지 일대이며, 관군이 매복했던 지점은 길 건너편 서북쪽 650미터 거리에 현대 지도상 공수원으로 나오는 송암리 118-26번지로 유추된다.

45) ‘동천’은 금강 지류인 현 유구천(維鳩川) 북쪽의 공주 우성면 동대리로 ‘동천주막’은 지금의 우성면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경계를 했다. 공주 진입 저지 목적의 2차 방어선으로 보인다.

본년 10월 15일에 홍주부에서 창의가 선동되어 관하 20여 군이 항응하여 군량과 기계를 판비하는데 청양군수 정인희가 먼저 수천 명을 조발하여 밤을 타 공주를 엄격코자 한다고 급보가 왔거늘, …{중략}…직일(直日)에 이인찰방 구완희로 50명을 거느려 웅진을 건너 공수원에 둔치고, 우룡(백낙완-논자 주)은 50명을 영솔하여 동천주막에 주둔하고 사방의 동정을 살필 새…”⁴⁶⁾

충청감영에서 공수원까지는 13km로 강을 1번 도하하고 도보 3시간 30분 거리다. 공수원은 공주 우성면의 경계 지역인 정산군 목면 송암리(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로, 철마산(지금의 미결산) 동남쪽 무죽바위산(해발 160m)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매복하거나 관측하기에 최적 장소였다.

〈그림 2〉 「靑邱圖」 중 칠갑산-정산-공서원-공주 성두면 동천-웅진-공주감영 경로



46) 白樂完, 신복룡 校註, 「남정록」, 앞의 책, 191쪽.

〈그림 3〉 「朝鮮五萬分一地形圖: 公州」(1922) 중 公須院(*정중앙)



구완희가 부대 선봉장을 속여 지체시켰던 목적은 『손자병법』 제10 「지형」편에 “험한 지형인 험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위치하면 반드시 높고 양지바른 곳을 차지하여 적을 맞이하고, 만약 적이 먼저 위치했으면 유인하여 물러나야 하며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전술을 구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도(六韜)』 제5 「표도」 ‘소중(少衆)’편에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상대할 때 쓰는 전술이 설명되어 있는데, “반드시 날이 저무는 시기를 이용해서 초목이 우거진 곳에 부대를 매복시켰다가 좁은 길목에서 적을 요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중대급 병력이었으나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관군의 효과적인 대응 전술이 백낙완의 회고에 보인다.

다만 오늘밤 싸움뿐 아니라 타일에도 의병을 만나거든 거짓 치는 형상만 보이고 그 무리를 헤쳐 군물만 탈취하되, 인명은 살해치 말라.⁴⁷⁾

47) 위와 같음.

이는 40일 전인 10월 28일(陽12.14) 300여 명의 무장 의병으로 구성된 문석봉 유성의진에게 써서 성공했던 양동 작전이며, 정인희 부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

〈표 1〉 정인희 부대 대 관군의 편제 및 화력 비교

	정인희 부대	구완희 부대
지휘부	선봉장:정인희 참모장:이세영, 참모:이봉학 선봉:이병승, 중군:김정하	공주부 영관:구완희(전 참모관, 이천찰방) (직명 미상):백낙완(전 중군)
병졸	유회군, 금정역민, 보부상, 청양 등지 주민 총 2,000명	100명
무기	유회군 외: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 역민: 장작.	신식 소총 및 대포 1문(추정)

다. 정인희 부대의 패전

1896년 1월 19일 홍주부 손승용은 홍주와 청양 두 지역 동정을 정탐하면서 정인희 부대를 도둑떼[賊匪]로 규정하고 상부에 “시무를 잊고 민심을 요란히 하며 창궐하는 적비에 대해 본인이 병사를 이끌고 토멸케 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1월 20일 내부대신 유길준은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에게 “청양군수 정인희와 정산군수 서상면은 지방을 지키는 벼슬아치로서 인민을 부추기어 현혹하고 직무처를 상부 지시 없이 함부로 떠났다”라는 「면관청의서」를 올렸다.⁴⁸⁾ 1월 21일(陰12.7) 내각에서 청양군수와 정산군수의 면직이 가결되었고, 김홍집과 유길준 명의의 「상주서」가 올라가 최종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되어 면직되었다.⁴⁹⁾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인희 부대는 석식 직후 출

48) 『議奏』 0043권, 奎17705-v.1-69, 032a.

49) 『官報』(229), 1896.1.23.

정을 재개했다. 간두문에서 철마정까지는 3.6km로 평지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일 날씨가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다 눈이 쌓여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천후였다는 점이다.⁵⁰⁾

철마정에서 공수원까지는 2.8km 거리인데 1km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 나타나며 여우고개[狐峴]를 넘으면 다시 평지다. 부대의 행군 길이는 2열 중대로만 계산해도 1km 이상의 긴 행렬이었을 것이다.

눈길과 어둠 속에서 이병승과 김정하가 이끄는 선발대가 공수원을 향해 다가오자 구완희 소대가 일제히 총격과 포격을 가했다. 이에 혼비백산하며 선두 진열부터 무너지고 후발대가 차례로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정인희가 의도를 몰아 간두문과 공수원에 주진하고 밤을 타 방장 행진하여 나오는데 눈은 표요히 날리고 바람은 소삽한데 밤이 또한 깊은지라. 구완희가 병대를 단속하여 일제히 내달아 고함지르고 발총하며 거짓 치는 형상을 지으니 포성이 원근산천을 진동하는지라. 피도가 홀지(忽地)에 우레 같은 병성(兵聲)을 당하매 간담이 서늘하고 수족이 황란하여 가졌던 군물을 던지고 광풍의 낙엽같이 흔적 없이 도망하였더라. 우룡(백낙완-논자 주)이 포성 소리 남을 듣고 접전하는가 하여 군사를 휘동치왕(揮動馳往)한즉 피도가 이미 관군에게 패함을 받아 흩어졌더라.⁵¹⁾

이병승을 선봉으로 삼고 김정하를 중군으로 삼아 행군해 간두문에 이르렀는데, 선봉군이 공서원에서 구완희에게 반격 당해 패퇴했다. 청양군수는 패전보를 듣고 인장을 향장에게 돌려보낸 뒤 도피했고, 대군은 해산되었다. 부득이 남포로 가서 의병을 모았다. 이중소·이상천 둘 다 포로가 되어 강제 삭발 당했다. 이중

50) 安昌植, 「良湖日記」(1895.12.7), 앞의 책, 166~167쪽.

51)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앞의 책, 191~192쪽.

소는 척숙 전 관서 이용원⁵²⁾에게 공갈까지 듣자 끝내 목을 매어 죽었다.⁵³⁾

안창식 일행은 정인희 부대를 쫓아 정산으로 갔다가 이 퇴각 광경을 목격했다.

치성⁵⁴⁾주막[雉城店]에 머물고 저녁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2경(저녁 9-11시-논자 주)도 못되어서 간두문(干頭門)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좀 있다가 청양군수가 패군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을 잡고 군기를 끄는 사람들 백여 인이 황망히 정산(定邑)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또 얼마 안 되어 또 1대(一隊) 병정들이 달려와서 대포를 쏘았다. 사나운 우레 같이 굉굉하고 박박하여 귓속이 갑자기 메이는 듯 했다.⁵⁵⁾

이렇게 12월 7일 밤 8시경 공수원에서 공주부 파견 구완희 부대를 마주해 항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술 실패로 패전하고 말았다.⁵⁶⁾ 다만 구완희도 진두지휘 중 선발대 응사에 충상을 입

52) 이용원(1832~1911)의 족보 확인 결과 이증소와 친척은 아니었고, 같은 문중 인물로 확인된다. 그는 한말 고위 관료로서 1910년 일진회 합방청원서 찬성 등 친일의 길을 선택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53) “(原文)以李秉承爲先鋒, 金正河爲中軍, 行至干杜門, 先鋒軍于公西院, 果被具完喜反擊敗績, 靑守聞敗報, 歸印鄉長, 逃避, 大軍渙散, 不獲已, 向藍浦召募, 李重韶, 李相天, 俱爲被擄被割. 李重韶聞其叔前判書李容元之恐嚇, 遂自縊死”(李世永, 「古狂年譜」, 「三十二年 乙未」, 第十頁). 이증소의 생년은 1871년, 사망일은 1895년 12월 9일(『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 2(1983), 完山李氏密城君派宗親, 1983, 102쪽)이므로 체포 2일 후에 사건이 발생했고 만 24세에 불과했다.

54) 원문의 ‘雉城’은 「定山縣地圖」(1872)에 ‘致城市’, 「朝鮮五萬分一地形圖: 靑陽洪城二號」(1919)에 ‘場堡’, 「朝鮮五萬分一地形圖: 靑陽(公州十四號)」(1922)에 ‘雉城場’으로 나오는 ‘치성장터’로 현 정산면 역촌리 163번지 일대다. 이곳에서 간두문은 2km 거리다.

55) 安昌植, 「艮湖日記」(1895.12.7), 앞의 책, 164, 167쪽.

56) 李根周, 「乙未錄」, 『대한의사 청광자 실기』, 홍성: 청운대 남당학연구소, 2015, 56쪽.;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7

은 것으로 보이는데,⁵⁷⁾ 백낙완 소대가 곧바로 합류해 퇴각군을 추격하여 철마정, 간두문을 지나 정산현에 주둔했다. 1월 21일(陰12.7) 구완희가 대홍군수를 제수받았고, 1월 22일자로 백낙완이 참령에 임명되었다는 『관보』⁵⁸⁾를 받아 보고서 친위대 당도 전에 작전이 종료되었다.⁵⁹⁾

〈그림 4〉 정인희 부대 공주부 진격 경로와 거리

← 총 50km(청양군청-공주부=41km) →								
금정역	청양군청	청양 탄동→대타→정산 용머리→현내면	정산군청	간두문	철마정	공수원	웅진	공주부
9km	18.6km		3.4km	3.6km	2.8km	13km		

라. 정인희 거의의 당대 평가

동지 이설(李偈, 1850~1906)은 수감 중 정인희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정인희의 행동 결과보다 명분과 과정을 보라”는 의미의 충고

쪽. ; 구완희 소대의 반격을 당했던 정산 전투 지명이 ‘두문(=간두문)(니시무라)’, ‘공서원(=공수원)(이세영, 백낙완)’, ‘철마정(안창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기 관측 위치와 시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창식의 기록에는 “청양군수 부대가 철마정을 향하여 떠났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수원→철마정을 되돌아서 간두문→치성장터를 지나 정산으로 후퇴하는 부대를 보았던 것이다.

57) 정교, 이철성 역, 『대한계년사』 2, 서울: 소명출판, 2004, 179쪽. 참고로 화승총의 유효사거리가 70미터 내외임을 역산하면 당시 부대 선발대와 관군의 근접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 관군이 무장했던 총은 레밍턴 롤링블러일 가능성이 높고 유효사거리가 400미터이므로 백낙완의 기록에 따라 직사가 아닌 위협사격만 가했을 것으로 본다.

58) 『官報』(229), 1896.1.23 ; 『官報』(230), 1896.1.24.

59) 구완희는 관군을 승리로 이끌어 대홍군수(1896)에 임명된 이후 평리원 검사(1899), 내장원 공세과장(1900), 주차일본국 공사관 참서관(1901~1903), 의주군수(1904), 일본 진북군대 접응관(1904), 경무사(1905), 비서관 승(1905) 등에 오르고 을사오적 이지용의 막료가 되면서 친일 관료의 길을 걸었다.

를 담아 시로 남겼다.

「청양군수 정우당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읍읍(聞靑陽倅鄭嶠堂見敗感吟)」

書生多誤事 서생이 일을 그르침이 많으니
束手復何爲 손을 묶고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莫笑靑陽倅 청양군수를 비웃지 말지어다.
一番義旗 한 번 의병의 기를 들었도다.⁶⁰⁾

정인희에 대한 당대 평가는 홍주의병에 동참했던 청광자(淸狂子) 이근주(李根周, 1860~1910)의 기록이 있다. 그는 「을미록(乙未錄)」에서 “청양군수 정인희는 평소에 충의를 품었고 또한 지략이 있었다”라고 평했다.⁶¹⁾

남로선유사를 지낸 양원(陽園)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봉사일기(奉使日記)」 병신(1896)년 4월 19일자에 “청양 전 군수 정인희는 비록 창의(倡義) 때문에 낭패를 당했지만, 그 충의(忠義)와 재기(才氣)는 위 네 사람(고부군수 윤병재, 무주군수 조병유, 상주 전 군수 조원식, 옥천 전 군수 김명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평했다.⁶²⁾

전남 장성 출신 의병장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정인의(정인희의 오기-논자 주)는 당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공(강겸(姜縑, 1657~1713)-논자 주)의 고을(김제-논자 주)에 흘러들어 온 ‘의사(義士)’였으니 그 직필을 충분히 징험할 수 있을 터...”⁶³⁾라며 “의로운 선비”라고 평했다.

60) 李俔, 『국역 북암집』, 대전: 북암선생기념사업회, 2006, 70쪽.

61) 李根周, 『乙未錄』, 『대한의사 청광자 실기』, 앞의 책, 56쪽.

62) “(原文)…靑陽前郡守 鄭寅義, 雖因倡義而狼狽, 其忠義才氣, 不讓於上四人”(申箕善, 『陽園遺集 卷17: 奉使日記』(丙申四月十九日),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3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383쪽.

정인희는 청양군수에서 면직되고, 1월 27일부터 다시 홍주부의 신고로 세금 포탈 누명을 써 청양에 머물 수 없게 되어 1896년 봄 처자를 데리고 전북 만경군(지금의 김제시 만경읍)으로 이주했다가 1905년 말 선산이 있는 충남 결성군 성남리에 안착했다. 1917년 1월 2일 69세(만 67세)로 타계해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417-3번지 선영에 안장된 뒤 역사 속에 묻혔다. 1918년 4월 30일(陽6.8) 동지 임한주는 그의 첫 기일에 제문을 지어 바쳤다.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서 일부 번역문을 옮긴다.

「우당 정인희 공을 위한 제문(祭嶠堂鄭公寅義文)」

유세차 무오(1918)년 4월 그믐 병술일에 팽성 임한주는 삼가한 잔 술을 따라 올려 청송태수(靑松太守) 우당 정공(鄭公)의 영전에 곡하고 아뢰입니다.

…{중략}…을미년은 대관절 어느 해였던가. 그때 국모가 시해당하여 신체가 훼손되었으니 “우리가 산들 무엇 하겠는가. 나라의 큰 예법이 무너져 버렸도다” 비분강개하며 수많은 의병들에게 맹세하기를 “우리의 치욕을 씻어 내겠다”고 기약했으나, 소인배가 중간에 배신하여 우리의 중차대한 일을 망쳐 버렸습니다.

하늘의 큰 운수가 회복되지 않아서 벼슬 없는 신세는 한가롭기만 하였고, 통곡하며 부르는 긴 가락의 노래는 천지에 가득히 울렸습니다. …{후략}…64)

임한주는 정인희와 함께 일으켰던 홍주의병의 명분이 을미사변이었는데 소인배(이승우)의 배신으로 대사를 망쳤다고 명확히 밝혔다.⁶⁵⁾

63) 기우만, 오항녕·이주형·임희택 역, 『송사집』 16, 전주: 흐름출판사, 2021, 100쪽.

64) 林翰周, 『浬軒先生文集』 卷三下, 十三, 『한국역대문집총서』 558, 서울: 경인문화사, 1999, 26~27쪽.

65) 1896년 단발 강제 시행 철회와 의병 해산령으로 인해 의병 활동이 종료되었고, 명

4. 결론

기존 을미홍주의병 연구 성과에서 규명이 부족했던 정인희 부대 대 공주부 관군의 정산 전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 출신의 정인희는 1894년 7월 청양현감을 제수받은 뒤 1895년 11월 을미사변(8.20), 단발령 공포(11.15)에 항거해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해 공주부 공격을 맡았다. 사료에 의하면 공주부에 단발령 강제 시행의 원흉인 이종원이 관찰사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896년 1월 18일(음력 12.4) 정인희는 창의대장 이승우가 배신해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되었어도 선봉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자 2,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해 공주부 공격을 감행했다. 선봉장 휘하에 참모장 이세영, 중군 김정하, 참모 이봉학, 이병승 등 유림들이 보좌했고, 개화파에 불만이 있던 금정역참 역민들이 부대의 주축이었던 사실을 처음 밝혔다. 그러나 무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역참에 있던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로써 구색만 갖추 수밖에 없었고, 역민들은 각자 장작을 소지한 것이 전부였다.

청양군청에서 공주부는 41km로 측정되며 거리상으로 멀지 않

성황후 추모가 1902년 명성황후 감모비 건립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이가 바로 정인희의 장남 정훈모와 남포의병 출신 김홍제(김광제)였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듬해 정읍 무성서원에서 명성황후 추모와 일본에 복수를 맹세하며 내장사 서보단(誓報壇)을 설치해 1906년 마침내 무성서원에서 태인의병이 창의되기에 이른다. 홍주의병 선봉장을 자임했다가 파직된 정인희 일가가 전북 만경 이주 후 감모비와 서보단 설치에 관여했던 행적, 그리고 이승우와 계속된 악연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으나, 청양은 칠갑산 중심의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험준해 행군이 결코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눈과 비가 내리고 빙판이 되는 등 최악의 기후 상황이었다. 18.6km 거리의 정산군(지금의 청양군 정산면)까지 행군한 부대는 3일간 지체했는데, 공주부 파견 관군 구완희가 선봉장 앞으로 “공주 관찰사를 사로잡아 의진으로 찾아뵙겠다”는 거짓 간찰을 보낸 것이 원인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정인희 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우선 선봉장의 본래 관직인 군수에서 면직시키고 다음 친위대 출병의 두 갈래 방향으로 압박했다.

친위대까지 홍주로 출병한 상황에서 서쪽과 동쪽 양 방향에서 협공 당할 위기를 예상한 참모장 이세영의 조언에 따라 1896년 1월 21일 저녁에 선발대를 앞세워 출정했다. 정산과 공주의 경계에 설치된 ‘공수원’(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 부근에 이르러 선발대와 관군 간 접전이 벌어졌다. 공주부 파견 관군 100명 중 구완희가 이끄는 소대 50명의 매복·양동 작전에 선발대가 기습당하고 후발대의 진열이 무너지면서 도주해 패전하고 말았다. 구완희도 의병 선발대의 응사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군은 퇴각군을 쫓아 정산까지 추격해 진압을 끝냈고, 포로 2명도 확인되었다. 관군의 전략·전술은 무전(武典)인 『무경칠서』의 기본 지침대로 구사되었던 점도 유추되었다.

정인희는 홍주부의 신고와 정부에 의해 정산에서 공주 진격 날 파직되었고, 이후 세금 포탈 누명까지 써서 끝내 충남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홍주의병 동지들(이설·이근주·임한주)과 전남 의병장 기우만, 남로선유사 신기선은 정인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전투에서 비록 패했어도 충의와 의기를 높이 평가했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을미홍주의병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전국 규모 항일 의병의 도화선이 된 1906년 병오홍주의병 봉기

를 다시 일으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병 부대를 진압해 관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구완희는 대홍군수, 의주군수에 임명되며 승승 장구했고, 일본군에 협조해 러일전쟁 일본 진북군대 접응관, 경무사 등에 오르며 친일 관료의 길을 걸었다.

향후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때 관군의 방어 전술이 학계와 지역사에서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 『各司謄錄』, 『官報』, 『公文編案』, 『議奏』, 『忠清南北道來報』, 『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 『東萊鄭氏己未世譜(復元本)』,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京朝日新聞』.
- 「青邱圖」(一)(1834), 「定山縣地圖」(1872), 「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定山(洪州二號)·公州(公州十四號)」(1911), 「朝鮮五万分一地形圖: 青陽(洪城二號)」(1919)·「朝鮮五万分一地形圖: 公州(公州十四號)」(1922).
- 奇宇萬, 오향녕 · 이주형 · 임희택 역, 『송사집』 16, 전주: 흐름출판사, 2021.
-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한국학보』 74(20-1)(1994)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39000@N2M>.
- 申箕善, 『陽園遺集』 17,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3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 安炳瓚, 송용재 편, 「葵堂日記」,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安昌植, 송용재 편, 「艮湖日記」,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이구영, 『湖西義兵事跡』, 서울: 수서원, 1993.
- 李錫泰, 『小梅稿』, 서산: 서산문화원, 1997.
- 李 俠, 북암선생기념사업회 역, 『국역 북암집』, 대전: 북암선생기념사업회, 2006.
- 李世永, 「古狂年譜」(1939?)(한양대 신용하문고 소장본)
- 李在信, 『公清右道青陽邑誌』, 靑陽: 靑陽郡, 1906.
- 林翰周, 송용재 편, 「洪陽紀事」,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_____, 「惺軒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558, 서울: 경인문화사, 1999.

- 鄭 喬, 이철성 역, 『대한계년사』 2, 서울: 소명출판, 2004.
- 洪 楗, 최원경 역, 「洪陽紀事」(1894),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정
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 黃 玆,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 서울: 문화과지성사, 2005.

2. 단행본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民族戰爭通史』 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3. 연구논문

-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윤병석교수
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_____, “朝鮮末 文錫鳳의 儒城義兵”, 『역사학보』 134-135(1992)
<http://uci.or.kr//G901:A-0000908408@N2M>
- _____, “金福漢의 洪州義兵과 파리長書 運動”, 『대동문화연구』 39(2001)
<http://uci.or.kr//G901:A-0001653029@N2M>
-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 18(1995)
<http://uci.or.kr//I410-ECN-0101-2009-010-014768522@N2M>
- _____, “대한제국시기 보부상의 정치적 진출 배경”, 『한국문화』 23(1999)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1054516@N2M>
- 이성우, “古狂 李世永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103(2022)
<http://uci.or.kr//G901:A-0010862888@N2M>
- 최근묵, “洪州義兵에 관한 一考: 參與階層을 중심으로”, 『새마음』 8
(1988) <http://uci.or.kr//G901:A-0000731607@N2M>

<Abstract>

A Study on 1896 Jeongsan battle under Cheong, Inhee, vanguard of the First Hongju righteous army

Cho, Jun-hee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overnment troops' military operation to suppress the First Hongju Righteous Army led by Cheong Inhee, known as the Battle of Jeongsan. Previous academic studies have not addressed the situations faced by both the vanguard leader Cheong Inhee and the government troop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analysis and field work.

The governor of Cheongyang-gun, Cheong Inhee, became the leader of the army's vanguard on January 18, 1896 and formed an army of 2,000 righteous soldiers. Then, Cheong Inhee attacked Gongju-bu, which was within a 41 km distance. The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chief advisor Lee Se Young, had assisted under his command and the Station Staff of the Geumjeong Public stage station were key members of the righteous arm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equipment for the rugged environment and bad weather. They had marched for 18.6 km and stayed at Jeongsan for 3 days.

At that time, 50 soldiers in the platoon of Koo Wanhee, among the 100 Gongju-bu government troops, were hidden in ambush at Gongsuwon at the border between Jeongsan and Gongju, and 50 soldiers in the platoon of Paik Rak-Wan defended at the back. The advance

party of the righteous army that resumed their advance in the evening of January 21 was ambushed by the government troop's feint strategy when they reached Gongsuwon and the late-arriving group ran away, at which point they were defeated. The main reason for the defeat was that the government troop, despite being smaller in size, had stronger firepower and their strategy was in a superior position.

In academia, Cheolmajeong has been known as the Jeongsan battle a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Jeongsan-gun Gongsuwon (currently Songam-ri, Mok-myeon, Cheongyang-gun) was the Jeongsan battle area.

After the defeat, Cheong Inhee was dismissed from the position of governor, and left the Chungnam area. Others, including Lee Se Young who had served under Cheong Inhee, initiated the Second Hongju righteous army rebellion in 1906 following the failed experience of joining the war.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ategies employed by the government troops and the early Righteous Arm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in military and history, as well as studies on regional history.

Key words : Koo Wanhee, Lee Se-Young, Jeongsan, Cheong Inhee,
Hongju Righteous Army